

[P3-17]

##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위생관리 수행수준 평가

홍완수, 신원선<sup>1)</sup>, 이경은<sup>2)</sup>, 전수연\*

상명대학교 의식영양학전공, 한국식품연구원<sup>1)</sup>,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전공<sup>2)</sup>

### Employees' Self-evaluation of Food Safety Practices at School Food Service

Wan-soo Hong, Weon-sun Shin<sup>1)</sup>, Kyung-Eun Lee<sup>2)</sup>, Soo-yeon Jun

Major in food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, Sangmyung University, Seoul, Korea,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, Kyunggi Province, Korea<sup>1)</sup>,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, Seoul Women's University, Seoul, Korea<sup>2)</sup>

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위생관리 수행실태를 조사하고, 위생관리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. 문헌조사를 근거로 개발된 설문지는 '개인위생', '기기 및 설비 위생', '식재료 위생'의 3부분으로 구성된 위생관리평가 파트와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었다. 위생관리 수행수준은 5점 척도(1: 항상 그렇지 않다 - 5: 항상 그렇다)를 이용해 조리종사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. 설문지는 서울지역 120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600명의 조리종사원에게 배포하였고, 103개교에서 378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.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370부(회수율: 61.7%)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.

응답한 조리종사원의 대부분이 여성(97.0%)이었고, 40세 이상~50세 미만(64.8%), 고등학교 졸업(68.0%)의 학력을 보였다. 고용상태는 일용직 62.8%(223명), 정규직 (12.7%명)의 순으로 나타났고, 근무경력은 3년 이상~6년 미만 (37.8%), 3년 미만 (29.5%)이 많았다. 전체 응답자의 64.4%가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. 현재 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력에 대해 '현재 인원으로 충분치는 않으나 급식은 가능 (54.9%)', '현재인원으로 부족하여 인력충원이 필요 (22.8%)', '현재인원으로 충분 (22.3%)'의 순으로 응답하였다.

조리종사원 스스로가 평가한 위생관리 개인위생 수행수준은  $4.85 \pm 0.22$ , 기기위생  $4.87 \pm 0.21$ , 식품위생  $4.87 \pm 0.21$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. 대체로 종업원의 근무경력, 연령, 조리사자격증 소지 여부 등 인적사항에 따라 위생관리 수행수준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, 개인위생의 수행수준은 정규직 직원들이 일용직 직원들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( $p < .05$ ). 개인위생 관련 항목 중 '작업전 위생복, 위생모 등의 청결상태의 확인', '작업 전환 시 손의 세척', '고무장갑, 일회용 장갑의 용도별 분리 사용 여부'에서 정규직 직원은 자신의 수행수준을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. 본 조사 결과 위생관리 수행도는 조리종사원의 인적사항 보다는 근무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,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여건이나 근로조건 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.